

2020년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익연>

이번에 희곡우체통이 선택한 작품은 새가 양쪽 날개를 활짝 폈다는 의미의 <익연(翼然)>입니다. 여타의 작품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가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데 과연 낭독회가 가능할까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긴 호흡의 사유, 존재의 내밀함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문학적 글쓰기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익연>은 ‘체홉 새로 쓰기’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체홉의 <갈매기>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트레플레프의 자살로 끝나는 <갈매기> 이후의 상황과 인물을 상상하며 쓴 작품이죠. 사실 이런 시도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희곡사를 들여다보면 고전을 현대화한 작품들이 무척 많고, 최근 들어서는 고전만이 아니라 체홉을 비롯한 근대의 명작들도 현대화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자 드 웨트의 <세 자매>나 국내 창작극인 <박제 갈매기>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하죠.

<익연>은 많은 부분을 체홉의 결과 함께 하다 보니 우리 시대 작가의 글쓰기치곤 다소 장황하다는 생각도 들고, 작가가 부여한 컨셉인 파놉티콘(원형감독)이 체홉의 작품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파고드는 섬세하고도 집요한 시선, 그 과정에서 존재의 양면을 서늘하게 표현하는 과정은 또 체홉의 본성과 잘 만나고 있지요.

작품이 가진 비슷한 결과 다른 결이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요? 그것을 낭독회를 통해 예감해보고 싶습니다. 낭독회가 작가분에게 작품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네요.

언제나 그렇듯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지요. 이번에 평소보다 긴 분량의 낭독회라 낭독회를 준비하는 우체통도, 관극하실 관객 여러분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 속에 한 젊은 작가가 날개를 활짝 펴는 모습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